

책 안 읽는 국민의 '세계최대서점'

“무려 1백50만권의 장서, 60리(24.7km) 길의 서가, 매장면적 2천7백평, 하루 이용고객 5만명.”

지난 6월1일 문 달은지 1년만에 광화문 네거리에 다시 간판을 내건 교보문고의 외형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굳이 다른 나라의 서점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 숫자들은 교보의 규모가 최상급임을 대변해준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50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교보의 자랑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명도를 전보다 높여 눈의 피로감을 덜게 했고, 소음방지를 위해 천정에 27만개의 은백색 특수봉을 달았고, 분류표시판을 손으로 써붙여 고객의 친근감을 유도했다는 것 등이 바로 교보가

지난 1년사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신경쓴 배려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단장으로 선보인 교보를 향해 고객들은 칭찬만 하진 않는다. 우선 이용고객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드넓은’ 공간에 친숙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푸근한 안정감을 맛보기엔 3천평 가까운 트인 공간이 가물가물하게만 보인다는 얘기가. 또 60리 길의 이정표격인 분류표시판이 ‘손글씨’라 친숙해 보이지만, 크기가 작아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고도 한다. 더욱이 서가 사이의 통로가 좁아 차분히 책을 뒤져보며 즐거기가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객뿐 아니라 출판사의 영업직원들 역시 아직은 서점직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입사원들은 물론 경력사원들조차도 1년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과 거래처 직원들의 이런 불만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만족스럽게 개선될 문제들임에 틀림없다. 교보의 새얼굴을 대하며 드는 생각은, 슬한 소문 끝에 당당히 독자 앞에 선 ‘세계최대의 서점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자긍심. 서울 한복판 땅 밑에 우리는 150만권의 책을 쌓아둔 국민이 되었다. 하지만 구슬 서말을 장독에 담아 묻어두어서는 안된다. “책은 읽혀졌을 때 비로소 책”이란 말처럼, “10년은 버틸 수 있다”는 교보문고가 1년쯤 뒤에 “문턱이 닳아 또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면 좋겠다. 교보가 독서를 멀리하는 국민의 ‘세계최대서점’이 아닌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민의 서점이 될 날을 기대한다. — 최태원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청년시절엔 사교계의 총아였다가 지병인 천식악화로 소설창작에 전념했던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다시피한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로 근대 심리파의 시조로 불리는 프랑스의 작가.

자전적 소설인 「잃어버린……」을 비롯한 글들을 통해 그가 모색하고 방황하며 구축한 예술세계를 풀어쓴 「프루스트의 예술론」(이형식 지음, 서울대출판부) 부록에 덧붙여진 「독서」에 관한 글(「機作과 雜文」중에서)은, 한 소설가의 ‘책 대하기’를 여실히 보여주어 있어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독서의 역할이 갖는 한계는 그 효능의 본질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그 효능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어린시절 즐기던 독서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식당의 벽난로 옆에서, 나의 침실에서, 머리 받침이 고리처럼 달린 안락의자에 파묻혀서, 그리고 오후의 쾌청한 시간에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의 미풍이 멀리서부터 와 나의 코앞에 클로버나 잠두 냄새를 이끌어 와 아른거리게 하여 피곤해진 나의 시선을 끌며 말없이 나의 주위에서 놀던, 정원의 개암나무와 산사나무 밑에서 내가 읽던 책, 이십년의 세월이 흐른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굽혀 아무리 가까이 접근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눈은 분별해낼 수 없는 그 책의 제목을, 그러한 류의 인지에 더 적합한

내 기억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다. 그것은 때오필 고풍에의 「프라카스 대위」이다. 나는 그 책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두세개의 구절을 특히 좋아하였다. 어떠한 작가도 그 구절들에 비할만한 것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의 아름다움이, 때오필 고풍에가 각 권에서 단지 두세번씩 한귀퉁이만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어떤 실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느꼈다. 또한 그가 분명 그 실체를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다른 책들을 읽고 싶어했고, 그 책들의 모든 구절들 역시 못지않게 아름다우며, 그 책들이 다루고 있는 사물들도, 내가 평소 그것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듣고 싶어하던 바로 그러한 사물일 것이라 믿었다.

“웃음은 그 본질 자체가 잔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켜준다. 그리고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웃음은, 영원의 한가함 속에서 기쁨 있게 맘껏 웃는 불멸의 그리고 축복받은 神들의 전유물이다.”

이 구절이 나를 진정한 도취경에 몰아넣었다. 나는, 이 中世를 통하여 오직 고풍에만이 나에게 드러내줄 수 있는 경이로운 太古를 보는 듯하였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어휘들 때문에 아예 나의 상상 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는 어느 城을

지루하게 묘사한 끝에 그러한 구절을 쓸적 삽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편을 오직 그러한 구절들로만 가득 채우면서, 일단 그 책을 읽기만 하면 내가 계속하여 알고 좋아하게 될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나는 진리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현자인 그가, 셰익스피어·생틴느·소포클레스·외리피데스·실비오 펠리코 등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지를 말해주시 바랐다. 그 책들은 몹시 추웠던 어느 3월 한달 동안에 읽은 것으로서, 나는 매권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마다, 不動의 상태로 앉아 있는 동안 응축된 힘과, 마을의 길에 불어닥치는 영생력 있는 바람, 독서가 끝났다는 생각 등이 가져다 준 열광을 억누를 길 없어, 이리저리 걸으며, 발을 구르고 6학년엔 유급함으로써, 그리고 훗날 외교관이나 파기원·변호사가 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더 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나에게 분명히 말해주시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구절이 끝나자 마자, 그는 “먼지가 하도 두껍게 덮여서 그 위에 글씨를 쓸 수도 있을 정도인” 탁자를 묘사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나의 눈에 너무나 무의미한 일로 보였기 때문에 나는 나의 관심을 단 한순간도 그것에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풍에의 다른 어떤 책들이 나의 열망에 더욱 잘 부응하며 그의

사상을 송두리째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게으름에, 그 천박한 수준에서의 침체에, 참여하고 있음인지, 혹은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독서 뒤에 오는 열광이 개인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인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름다운 책 한두 페이지를 즐겨 읽던 문필가는 한들이 아닌 듯하다. 에머슨은 글을 쓰기 전에 플라톤 몇 페이지쯤을 읽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또한 베르길리우스가 천국의 문턱까지 인도한 사람은 단테뿐만이 아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자극제이고 또 그 마의 열쇠가 우리들 자신의 심층부에서, 우리가 침투해 들어갈 수 없었던 영지의 문을 열어주는 한,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갖는 역할은 구원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의 개인적 삶에 눈뜨게 해주는 대신, 독서가 그 영혼의 삶을 대체하려 든다든가, 혹은 진리가, 우리 사유의 내밀한 발전 및 심정상의 노력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이상처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하여 우리들은 책꽂이 선반으로 손만 뻗어 심신의 완벽 한 안락함 속에서 수동적으로 맛을 음미하기만 하면 되는 풀처럼 책들의 갈피 속에 저장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보일 때, 독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으로 변한다.

출판저널

통권 제108호 / 1992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允源 李聖沐 金重植
디자이너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旻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孝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愼鍾廈 | 安秉永 |
| 安輝滄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淑淑 | 李薰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烈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毅 | 李重漢 |
| 李姬姬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曉鍾 | 鄭雲瑛 | 鄭晉錫 |
| 鄭錫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震 | 韓勝憲 | 許順烈 | 洪廷善 |
| 黃鉉鎭 | |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료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